

#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27회차, 구원, 2부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구원에 대한 세션 27, 파트 2입니다.

정당화의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는 정당화가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정적 또는 법적 용어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무죄, 죄 없음, 입증됨의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또한 정당화이고, 정당화의 언어는 하나님의 미래의 심판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종말 심판에서 의롭다고 증명될 것이라고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또는 로마서 2장 13절도, 바울이 심판의 맥락에서 칭의에 대해 논의할 때, 2장 13절도, 왜냐하면 율법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의롭다고 선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미래의 심판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심판에서 그의 백성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급이 구약성경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읽어 볼게요. 구원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의로움, 시편 장이나 시편 98편-시편 98편과 2절과 3절을 예로 들어보죠. 1절도 읽어 볼게요.

시편 98편 1~3절, 주님께 새 노래를 부르라.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를 위해 구원을 이루었다. 주께서 그의 구원을 알리셨고 그의 의를 민족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랑과 신실함을 기억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주님께서 그의 구원을 알리는 것과 평행하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그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의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구약성경에서 법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욥기 9장 2절은 읽지 않겠지만, 그것은 법적 또는 법정적 의미로 사용된 의나 정당화의 언어의 한 예입니다.

시편 51장 4절, 다시 다른 시편으로 돌아가서, 구약에서도 의로움이라는 언어가 법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51장 4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당신께만 죄를 지었고 당신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당신의 판결에 의로우시고 판단하실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의롭다 함은 하나님의 판결, 무죄하다고 선언받고 의롭다 함을 얻는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로 여겨집니다.

이제 그 배경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서 그의 백성을 의롭다고 하실 의도, 종말론적 심판의 배경을 배경으로 바울의 의롭다고 하는 언어를 이해할 때, 바울의 의롭다고 하는 언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의롭다고 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여 현재에 이미 무죄하다고 선언될 수 있으며, 그의 부활은 그의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롭다고 하는 것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 그와 합류함으로써 성취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죄, 의롭다고 선언되고,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서 무죄의 지위를 갖는다는 미래의 판결은 이미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현재에 내려졌습니다. 즉,

칭의는 이미, 하지만 아직은 긴장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의롭다고 선언하고 그들을 의롭고 무죄하다고 선언하신 미래의 심판은 이제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현재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에 앞서 지금 사람들을 무죄하고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미래의 판결은 현재에 내려졌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칭의를 더 설명하고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세요. 5장 18절과 19절, 특히 18절에서, 그러나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하면서 바울이 다시 칭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살펴보세요. 이것은 이미 측면, 즉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8절에 따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았듯이, 한 가지 의로운 행위,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의롭다 함은 정죄의 반대 개념으로 보입니다. 19절에 따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19절에서 의로움이나 칭의는 정죄의 반대입니다. 칭의된다는 것은 정죄받지 않는 것, 무죄 또는 무죄로 선언받는 것,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4장 6~8절에서 다윗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읽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칭의가 어떻게 오는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구약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자의 복에 대해 말할 때 같은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행위 외에도, 범법이 용서되고 죄가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실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서, 정당화는 죄의 용서라는 맥락에서 이해된다. 즉, 정당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는 이제 무죄로 선언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죄로 선언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죄를 처리하고 죄의 용서를 제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죄 또는 무죄로 선언되었습니다.

아마도 개혁 전통 내에서도, 칭의를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계산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의로운 삶에 대한 순종을 묘사하는 구체적인 본문이 없지만,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죽음에 대한 순종,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운 삶, 지상에서의 삶 전반에 걸친 순종이 우리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구체적인 언급을 어떤 본문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 개념은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들은 항상 죄 때문에 깨졌습니다.

다윗 왕조차도 언약 관계에 대한 응답으로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순종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참 아들, 참 아담으로서 예수께서는 다른 누구도 제공하지 않는 순종을 제공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우리가 완벽한 순종으로 응답한 분과 연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성취됩니다.

따라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귀속된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명확한 본문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언약과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하는 맥락에서 그의 순종은 우리의 순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칭의가 주로 우리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그것은 주로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지정하거나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그것은 함축입니다. 그 둘 다 칭의의 함축입니다.

하지만 특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그리고 특히 후자에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가라는 맥락에서 정당화가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그것이 함축과 맥락의 일부이기는 하지만요. 오히려 그것은 기본적인 법정 용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무죄, 무죄 판결, 그리고 현재에 선언된 옳다는 지위에 대한 판결을 가리킵니다.

그 종말의 판결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죄를 위한 십자가에서의 그의 죽음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자들에게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로마서 3장을 논의할 때 이미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판사가 실제로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선언하는 것은 정의에 위배됩니다. 만약 당신이 TV에서 보거나 법정 장면에 참여하여 당신이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유죄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무죄로 선언되는 것을 보았다면, 그것은 큰 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외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해 무죄 또는 무죄로 취급되고 선언된다면 정의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의를 어긴 것이 사실은 정의를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어기지 않고도 죄인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 바울이 26절에서 말했듯이, 그는 곧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어 공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 되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이것이 정의를 어기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무죄하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를 어기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죄를 다루심으로써 자신의 정의를 어기지 않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 죄를 위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인한 죄의 속죄로 바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의롭고 무죄하며 그들의 죄의 맥락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근거로 죄를 공정하게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성경적 신학적 개념이며, 하나님의 미래의 심판이 그의 백성을 무죄하다고 선언하고,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고, 그들이 의롭다고 선언하고, 의롭다는 지위를 갖게 하시는 것이 현재로 거슬러 올라갔음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이제 의롭다고 선언될 수 있고, 의롭다고 선언되고, 무죄하고, 무죄하고, 의롭다고 선언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현재에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칭의와 관련된 주제는 또한 화해입니다.

화해의 언어는 관계의 언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즉, 그것은 관계적 용어입니다. 화해는 기본적으로 서로 불화하고 , 서로 적대적인 두 당사자를 말하며,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적대감은 이제 제거되었고,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평화로운 관계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화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화해가 또한 칭의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바울이 처음 네 장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화해의 언어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적대감과 적의가 있었던 관계, 적어도 우리 쪽에서는 그랬지만, 우리는 본성상 진노의 자녀로 묘사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만합니다. 이제 그 관계는 시정되어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평화로운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래서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제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그와 화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5장 1절, 즉,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화해했습니다.

이것은 9절과 10절, 특히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분명하게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는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그와 화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처음에 적대감을 일으킨 문제, 즉 인간의 죄성을 해결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죄를 다루고 그 적대감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적대감이나 원수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 평화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장벽을 제거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이것은 두 당사자가 함께 모여 조건에 동의하는 일종의 양당 협정이 아닙니다.

하느님만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화해시키고, 그 화해를 이루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주도권을

잡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 비슷한 언어를 발견하는데, 이 역시 화해라는 신약의 신학적 주제를 다루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8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 창조에 속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모두 우리를 그분 자신과 화해시키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백성을 자신에게 화해시키는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사역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에게 화해시키셨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화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더 자세히 정의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음으로써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이 화해의 메시지를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권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로마서 5장과 관련하여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주제를 주목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개념입니다. 둘째, 회복된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적대적인 관계, 깨어진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5장 19절에서,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다루는 것이 관계의 단절을 일으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의 화해가 5장 17절의 새 창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8~20절 바로 앞의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새 그리스도라면 새 창조가 왔고 옛 것은 지나갔으며 새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화해는 새 창조의 시작의 일부인 듯합니다. 사실, Greg Beal은 실제로 두 개의 기사에서, 하지만 그의 신약 신학 책에서, 화해는 구약에서 새 창조의 시작된 종말 약속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이사야 65장을 지적하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고 창조와 새 창조에 대한 논의에서 다루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이사야 65장에 대한 명확한 암시입니다.

이사야 65장은 아마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덕분으로 성취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15절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덕분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 새 창조물에 속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 창조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엘이 주장하듯이, 이사야의 회복 비전의 성취의 일부는 하나님과 그 땅에 사는 그의 백성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에서 타락과 죄로 인해 발생한 소외는 이제 새로운 창조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회복으로 회복되고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비엘은 고린도후서 5장의 화해는 궁극적으로 이사야가 새 창조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그 새로운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도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화해의 관점에서입니다. Beal의 신약 신학을 인용하자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가 바울이 유배의 소외로부터 회복하겠다는 이사야의 약속을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유배의 소외에 대한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죄와 죄 사함으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는 바울이 유배의 소외로부터 회복에 대한 이사야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죄와 죄 사함으로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분리를 극복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과 적대감과 적대감을 야기한 것, 즉 죄를 다룬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심으로(19절),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 행위로 인류를 자신에게 화해시키셨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으며, 이제 새로운 창조의 삶을 확립하고 시작하심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화해이다. 화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본문은 에베소서 2장, 특히 13절에서 17절이다.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화해의 언어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화해 또는 화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12절을 뒤로 물러서서 읽어보면,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13절, 멀리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것이 화해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 곧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화해의 언어가 더 많아졌습니다. 누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집단을 하나로 만들고, 적대감의 장벽, 나누는 벽을 허물었는가-화해의 언어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를 대체했습니다. 그의 육신에서 율법과 계명과 규정을 제쳐놓음으로써 그의 목적은 두 사람으로부터 한 새로운 인간을 자신 안에서 창조하여 평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평화의 언어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한 몸으로 화해시키려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화해시키셨고, 그로 인해 그는 그들의 적개심을 죽였습니다.

그는 오셔서 멀리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파하셨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 둘 다 한 영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화해의 언어를 주목하세요. 하지만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이중 화해를 발견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된 것으로 묘사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지만,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16절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를 하나님께 화해시키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묘사되고, 둘 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 죄가 언어와 관계에 단절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에게 화해시켜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해가 인류와 하나님 사이뿐만 아니라 인류와 인류 사이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개의 별개의 집단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은 서로 적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시민권에서 제외되었고, 서로 적대적이었고, 율법은 두 집단 사이에 장벽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는 적대감을 제거하고 그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왔으며, 이제 그는 그들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합니다. 그래서 다시 화해는 에베소서에서 두 가지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들 사이의 적대감을 제거하여 한 몸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 자신 사이의 화해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평화를 이루고, 평화로운 관계를 가져오고, 죄로 인해 적대감으로 공식적으로 특징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도 15절에서 21절까지의 잘 알려진 그리스도 찬송가에 이어 화해의 언어와 공명하는데, 이 찬송가는 십자가에서 흘린 그의 피를 통해 평화를 이루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 화해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언급으로 끝납니다(1장 20절).

이제 바울은 그것을 독자들에게 적용하고,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속으로 원수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사악한 행동 때문에 멀어지고, 적대하고, 적대감을 갖는 언어에 유의하세요. 하지만 이제 2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육신과 죽음으로 화해시키셔서, 여러분을 흠 없고 비난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그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대감과 소외의 관계가 이제 회복된 평화로운 관계로 교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체 맥락은 죄로 인해 발생한 탈구와 소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처리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암묵적으로, 우리는 계시록 21장과 22장이 이 미래 화해의 아직 아닌 차원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2장과 같은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창조에서 현실인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아직 읽지 않겠지만, 아직 미래의 화해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인류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서로 화해하며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새 창조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화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새로운 땅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제한 없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서신에서 보았던 화해라는 개념을 확실히 전제로 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은 화해와 칭의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지위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와 칭의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죄가 용서받고 죄가 처리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나 장벽이 생기는 동일한 현실을 가리키는 두 가지 은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주제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의 포괄적인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거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고, 자신의 백성으로 선출하고, 그들을 존재하게 하고 백성을 창조하는 은혜로운 행위를 제안함으로써 자신의 백성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새 언약의 성취의 일부로서 죄의 용서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이라는 주제는 시장의 언어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해방하고 구속하셨다는 탈출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통해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해방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무죄하다고 선언하시는 칭의, 법적 언어가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여 종말의 칭의에 대한 판결이 현재에 도달하도록 자신 앞에서 올바른 지위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화해는 적대적인 적대 관계가 이제 제거되어 평화의 관계로 교환된 관계적 용어이며, 화해된 관계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가 처음에 단절을 일으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처리되고 제거되었습니다. 논의할 다음 주제는 아들됨과 입양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특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니, 내 아들을 놓아주어 그가 나를 경배하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랬지만, 너희는 그를 놓아주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맏아들 파라오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맏아들, 아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입양하신 아들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출된 백성, 그가 택하신 사랑하는 소유물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아들됨과 입양의 언어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교회에 적용됩니다.

입양이 그리스-로마 세계에 대한 은유이기도 했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 관계와 입양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방인 독자들도 그것과 연관지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아들로 입양하신 것과 관련하여 구약성서에서 바로 나온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의 자녀인 것처럼 그의 자녀를 입양하신 관점에서 구원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의 구원을 입양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입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로 입양하시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중요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받은 영은 너희를 다시 두려움 속에 살도록 종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가 받은 영은 너희를 양자로 삼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를 통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영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은 출애굽기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 그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여 그의 백성으로 입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게 적용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여 그의 자녀로 입양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부어짐으로 확인됩니다.

사실 바울은 그것이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심으로 성취된다고 말하지만, 또한 우리 마음에 부어진 영으로 확증되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도 입양 언어와 아들의 언어를 출애굽기의 맥락에서 다시 한 번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 또는 자녀라는 이 언어는 바울이 발명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했거나 그에게 독특하게 계시된 신약 언어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바로 나온 언어입니다 .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 절 에서,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의 보호자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보호자 아래 있지 않습니다. 4장 1 절에서 7절로 넘어가는 대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속인이 미성년인 한, 그는 노예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요. 상속인은 아버지 가 정한 때까지 보호자와 수탁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성년이었을 때 세상의 초보적인 영적 세력 아래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언어를 주목하세요. 사람들은 미성년자와 비슷하게 노예로 여겨졌지만, 13절, 4절 , 그러나 정해진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여 우리가 아들의 양자로 입양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의 아들인 까닭에 더 이상 미성년자나 미성년자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가 아들인즉, 그 온전한 아들과 상속자라. 너희가 아들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으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이니라.

그러므로 당신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상속자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출애굽기의 맥락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신의 백성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상속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성인 아들의 지위에 도달했습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율법 아래 사는 삶이 보호자 아래 있는 것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교사 아래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베이비시터나 육아도우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입양된 아들과 딸입니다.

새로운 탈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율법 아래서 구속하셨고 이제 우리를 그의 입양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로마서 8장에서 보았듯이, 그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써 그것을 확증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새 백성에게 부어주신 축복 중 하나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의 기쁨과 뜻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가 입양하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며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의 축복의 상속자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다시 한 번 새로운 탈출에서 그의 백성을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시고, 그들을 그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들을 그의 아들로 입양하셨고, 그로 인해 이제 우리는 그 유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의 축복을 상속받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됨과 입양은 구약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 번 설명하는 중요한 신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구원의 범주에 속하는 또 다른 용어는 성화라는 용어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실제로는 종교적 용어 또는 순수함과



거룩함의 영역을 다루는 종교적 용어인 단어 그룹의 영어 번역입니다. 성화라는 개념은 거룩함, 따로 있음, 또는 기본 수준에서 거룩함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따로 구별되거나 거룩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미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볼 것이지만, 아직 차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과 2절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의 독자들, 고린도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구별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서신 대부분은 성도들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인이나 특정 수준의 거룩함에 도달한 사람에 대한 어떤 명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따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것은 거룩한 자들로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11절. 그러나 여러분은 씻기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즉 씻김, 거룩함, 의롭다 하심이 시간적 또는 논리적 순서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세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그들은 의롭다 하심과 함께 거룩함도 받았습니다.

즉, 그들은 구별되어 거룩해졌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거룩함은 여기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첫 열매로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일과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즉,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되는 영역에 놓였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거룩함이라는 언어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루시는 지속적인 과정임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신약의 다른 곳에서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본문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그것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본문 중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니, 잠깐 살펴보죠. 제가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3절, 사실은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3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성적 부도덕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러므로 이 지시를 거부하는 사람은 인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3절의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바울이 이제 성행위를 거룩함의 영역에 두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전체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다른 본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교회가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 부도덕한 형제를 추방해야 할 가능성이 높는데, 성화와 거룩함의 맥락을 전제로 합니다. 성화라는 단어가 항상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에 대한 다른 많은 언급을 쉽게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순종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성화, 즉 따로 구별되고 거룩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신약에서 거룩함이 미래의 현실임을 발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의 관계에 비교한 맥락에서 그는 5장 25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어떤 흠도 없이 거룩하고 흠 없는 빛나는 교회로 자신에게 바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지만, 거룩함의 언어는 아직은 아닌 맥락에 있는데, 현재의 현실은 교회가 죄를 처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26절은 종말론적 경향을 띠고 있는데, 그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 없는 신부로 그 앞에 바치시고, 거룩하게 하고, 따로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 마침내 완료되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22, 그러나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죽음을 통해 여러분을 화해시켜 거룩하고 흠이 없고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구약에서 거룩함과 구별됨이라는 주제 전체는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데서 성취를 찾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덕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죄에서 분리되고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때를 예상하면서 성취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23, 24.

평화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며, 그는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를 바라는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현재에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을 언급하는 것일 수 있지만, 아마도 23절과 24절은 우리의 종말론적 거룩함이나 아직은 아닌 것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함과 거룩함에 대한 구약의 언어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지금은 거룩한 것과 구별되는 것의 영역 안에 있는 신자들을 지칭하는 데 그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합니다. 신학자들의 언어를 빌리자면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금 따로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과정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하시어 그분의 면전과 그분의 시야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화는 또 다른 중요한 성경적 신학적 주제로, 구약의 약속인 다가올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설명합니다. 성화는 신약의 성취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축복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이지만, 이미 두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새로운 탈출로 구상되고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것을 관계 속에서 논의할 수 있었고, 논의했어야 했고, 언급했지만, 구원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것을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논의했지만, 중요한 것은 신약이 우리의 구원을 첫 번째 탈출을 본떠 새로운 탈출로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출하여 기업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출하여 구원하시는 새로운 탈출을 묘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는 그들을 죄와 악의 속박에서 구속하여 그의 왕국, 그가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기업으로 인도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 본문들을 읽지 않겠지만,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3절, 갈라디아서 4 장 1절부터 7절은 탈출 언어와 공명합니다.

로마서 8 장 14절에서 17절은 탈출 언어와 공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탈출과 이사야의 새로운 탈출 모티프에서 탈출 언어의 신약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속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은 새로운 탈출의 맥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새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탈출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에서 그 목표를 완수하여 그의 백성을 죄의 속박과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계시록에서는 외국의 압제자, 즉 로마 제국의 속박과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어 그들의 유업인 새 창조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살펴보고 싶은 마지막 주제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교수인 콘스탄틴 캠벨이 쓴 책입니다.

그의 책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이라고 불리며, 이는 바울의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언어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주해적 발전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연합과 동일시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바울의 서신 전체에서 그리스도 언어로 표현됩니다.

거듭거듭,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이 언어를 발견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4절부터 시작하여 이것의 주요한

예입니다. 그는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입양되도록 예정하셨는데, 이는 그의 뜻의 기쁨과 그의 은혜의 찬양과 영광을 따라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피로 구속을 얻었고, 곧 죄 사함을 얻었으니, 이는 그가 우리에게 풍성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된 것이니라. 그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그의 뜻의 신비를 알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선한 기쁨에 따라 때가 차면 그 때를 이루려 하심이니라(11절). 또한 우리는 예정되어 택함을 입었느니라.

여기서 멈추겠지만, 여러분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대한 언어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구원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로마서 6장 3-8절, 에베소서 2장 5-6절, 골로새서 2장 12-13절, 우리가 이미 읽은 모든 본문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됨으로써 새로운 창조의 종말론적 부활의 삶을 경험했다는 사실, 이 악한 시대의 권세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함으로써 죄와 이 시대의 권세에 죽음으로써 그들로부터 구출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언어가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의 통제 범위 내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속한 영역을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이 아마도 우리가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언어, 에베소서 4:22과 24, 골로새서 3, 9, 10을 이해해야 할 방식일 것입니다. 옛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아담의 영향과 통제 아래 있는 우리, 이 현 시대에 속한 우리입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영향과 통제의 영역 내에서 구원의 새 시대에 속한 우리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우리가 속한 두 영역, 두 시대, 그리고 각각의 머리인 아담과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것들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윤리적 권고를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성취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구원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특히 바울을 사용하지만 다른 신약 저자들도 사용합니다. 바울은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에서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을 언급합니다. 아담과 이브에 대한 본래의 의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써 창조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기 위해 행동하신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그의 백성의 구원을 성취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구원에 대한 세션 27, 2부입니다.